

개신교 종립학교의 종교교과서 분석

조 은 하

목원대학교

〈요 약〉

본 논문은 기독교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종교교과서 분석을 통하여 개신교 종립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종교교육과정에 관한 분석과 제언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기독교학교연맹에서 발행된 종교교과서를 분석하는데 체계성과 효율성, 정치성의 맥락에서 분석한다.

분석결과 종교교과서가 제 7차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교양과목으로서의 내용의 선정과 조직측면에서 체계구성은 이루어져 있으나 효율성의 맥락에서 볼 때 학습자의 발달적 과제와 다문화적, 다종교적 상황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발견하고 분석적이고 비판적인 종교교과서 성찰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재구성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첫째, 교과서 목표서술에 있어서 학습자의 요구와 필요가 반영되어 구체적 행동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목표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차원으로 서술되어야 하며 둘째, 교육내용의 선정과 조직 시 다문화적 상황이 고려되어야 하며, 학습자들의 학습가능성을 돕기 위한 해석적 언어가 사용되어야 하고, 교육내용의 잠재적 가치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문화적, 사회적, 종교적 편견들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교수-학습과정에서는 정보화 시대의 학습자들을 고려하여 다양한 매체가 사용될 필요가 있으며, 교사들을 위한 교수지원이 정책적 차원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 셋째, 교과서 개정을 위한 교육과정위원회의 활동이 연속적이고도 연합적 차원에서 이루어 질 필요가 있으며, 합리적이고도 지속적인 평가제도를 통하여 학습자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교육의 결과를 새로운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핵심 주제어 : 다문화사회, 학습자의 발달, 체계성, 효율성, 정치성

I. 들어가는 말

종립학교에서의 종교과목 교육이 교양과목의 일환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제 7차 교육과정의 시행으로 종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은 그 정체성과 역할에 대하여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¹⁾ 특별히 교과서는 교육현장에서 교육과정이 실제화 되는 가장 핵심적인 교육교재이며, 종립학교 교육의 현장에서 학습자에게 종교의 의미와 가치를 설명하는 가장 일차적인 교육적 도구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에 관한 검토와 성찰의 과정에서 가장 우선적인 위치에 서야 하는 것이 교과서에 대한 분석적 연구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정보화 시대의 다문화적 상황을 경험하고 있고, 입시에 대한 막중한 부담과 가지고 살아가면서 동시에 자아정체성 형성의 시기를 경험하고 있는 중학교 학생들의 삶의 자리를 염두에 두면서, 종교교육이 학습자들의 발달과정의 과제를 함께 풀어 갈 수 있고, 일상적 삶속에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도록 돕는 교육이 되기 위한 교육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교과서에 대해 분석적으로 성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기독교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접근유형을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기독교교육과정의 설계와 재구성을 위한 기준과 방법을 고찰하며, 기독교교육과정이 학교를 장으로 이루어졌을 때 나타난 학교종교교육의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러한 이론적 접근을 가지고 현재 개신교 종립학교의 종교교재의 현황과 내용에 대한 분석을 하도록 하겠다.

II. 기독교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접근 유형

1.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접근 유형

교육과정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아직도 끊임없이 제기되는 논쟁거리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단정할 수 없으나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논의로 정의될 수 있다. 첫째, 교육과정을 연속된 결과적 행위를 위한 계획으로 보는 입장이고, 둘째, 교육과정을 수업과 동의어로 보거나 통합된 개념으로 보는 입장이며 셋째, 교육과정을 학습자의 교육경험으로 보는 입장이다.²⁾

첫째 경우는 학교에서 무엇이 가르쳐져야 하는가? 의 문제와 교육과정이 의도하는 바는 어떤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교육과정입안자들의 의사 결정이 반영된 하나의 조직화된 교육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전통주의자들은 교육과정연구란 이론적인 것이 아

1) 고병철, <한국종교교육의 현황과 방향-종립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 제 21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5. 참고

2) 한준상의 (공역), 《교육과정 논쟁: 교육과정의 사회학》, 서울: 집문당, 1988, 75쪽

나라 교육실천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전통주의자들의 교육의 목적은 표준화된 행동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³⁾

둘째, 개념적-경험주의자는 1950년대말 이후 미국의 교육개혁에 영향을 준 교육과정론자들로 이들은 교육이 더 이상 학문적 가치가 없거나 적은 지식을 지양하고, 좀 더 생산적이고 경제적인 지식을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습방법도 자연히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탐구학습법이나 발견학습법 등이 강조되었으며, 교육과정을 연구하는데도 자연과학의 방법을 그대로 활용하고자 한다.⁴⁾ 개념적-경험주의자는 실증주의적 합리성에 기초하여 자연과학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여 수량화하고 법칙을 찾아내고 예언하고 통제한다.⁵⁾

셋째, 재개념주의자들은 1970년부터 형성되기 시작했으며 기존의 교육과정이론과 실천에 도전하는 새로운 교육과정의 개혁과 이론화를 시도한다. 재개념주의자는 교육과정을 보다 넓은 사회구조와 질서 속에 놓고 거시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한다. 즉, 교실 행동의 사회, 경제, 정치적 기능까지 확대하여 교육과정을 이해하려고 시도한다.⁶⁾ 또한 형식적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교수방법, 평가형태, 교실 생활 속에 내재된 잠재적 교육과정까지 주요한 연구주제로 다룸으로써 교육과정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철저히 규명하며 교육과정의 교육목표 및 내용선정의 정당성(rightness)의 문제를 항상 비판적으로 탐구한다.⁷⁾

즉, 전통주의자와 개념-경험주의자, 재개념주의자들이 그들의 교육과정 연구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것은 체계성, 효율성, 왜곡성의 문제라고 파악할 수 있다.⁸⁾ 그러나 기독교교육과정에 관한 연구는 어느 한 학파의 입장을 강조하기 보다는 각 학파의 연구형태로부터 발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차원의 개선방안을 다양하게 고려하는 맥락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설명했던 세 학파의 학문적 다양성이 고려되고 특히 기독교교육과정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중시하는 맥락에서 살펴 볼 때 기독교 교육과정의 개선 가능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네 가지 주제, 곧 (1) 기독교교육의 목적 및 목표의 설정, (2) 기독교교육내용의 선정 및 조직과 구성 (3) 기독교교육과정의 교수-학습과정을 중심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3) 위의 책, 서문참조

4) 김민환, 《재개념주의적 교육과정 탐구란 무엇인가?》, 김억환, 김민환 공저, 《새로운 교육과정 탐구》, 서울: 성원사, 1991, 17쪽

5) 한준상, 위의 책, 서문 참조

6) Pinar W. F.(ed), *Understanding Curriculum: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Historical and Contemporary Curriculum Discourses*, 김복영의 (역), 교육과정 담론의 새 지평, 서울: 원미사, 2001, 100-102쪽.

7) 손원영, 《프락시스와 기독교교육과정》,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20쪽

8) 강희천, 《기독교교육의 비판적 성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52쪽

2. 기독교 교육과정의 재구성

1) 기독교교육 목적, 목표의 설정

기독교교육과정의 목적과 목표설정 분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사항은 “교육목적”과 관련된 성서적 신학적 근거의 타당성이다. 교육목적의 설정 근거인 성서 그 자체는 인간에게 주어진 보편적 진리로서 수용되어야 하나 그 신학적 설명 체제는 시대적, 역사적 정황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목적에 관한 신학적 근거의 타당성을 재확인하는 일이 요청된다. 두 번째 사항은 “학습자”에 관련된 것이다. 교육목표의 설정은 대부분 학습자의 행동변화의 가능성과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자에 관한 폭넓은 이해를 필요로 한다. 또한 가변적인 상황을 고려하는 개방적인 설정방식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달리 서술하여 예기치 않은 교수-학습과정의 상황 속에서 교사의 융통성 있는 “교육적 상상력”이 발휘될 수 있는 여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선정될 필요가 있다.

특별히 다문화적 학습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Banks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교육목적과 목표 설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즉, 사회내의 다양한 문화에 대한 상호간의 인정과 이해, 사회 기관 내 다양한 집단간 협동, 다양한 생활양식, 종교적 신념, 가족구조사이의 공존, 미래사회 구현을 위한 각 하위문화의 자율성 등이다.⁹⁾ 이러한 지향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다양한 문화적 태도와 가치를 습득함으로써 다양한 인종과 종교와 삶의 양식에 대하여 차별이나 편견없이 인지할 수 있으며, 배려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2) 기독교교육내용의 선정과 조직

내용선정의 원리에서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하는 사항은 과연 어떠한 기준에서 학습내용이나 학습경험을 선정하느냐 하는 점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학자들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으나 적어도 다음의 네 가지 선정 원리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¹⁰⁾ 네 가지 기본 원리란 선정된 내용의 타당성과 유용성과 학습가능성과 구조적 위계성이다. 첫째 기독교교육과정은 그 내용선정이 성서적 근거와 건전한 신학적 해석위에서 수행될 때 그 타당성과 적절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둘째, 기독교교육과정은 그 내용에 있어서 “유용성”을 지녀야 한다. 즉 성서의 내용이나 기독교회의 전통에 관한 학습뿐 아니라 학습자들의 현재적 삶에 긍정적 영향을 줌으로 결과적으로 그들의 개인적 사회적 삶의 현장에서 기독교적 변형을 이끌어 내는데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는 유용한 교육내용으로 교육과정이 선정되어야

9) Banks James A., *An Introduction to Multicultural Education*, (Boston:Allyn and Bacon, 2002), pp.1-4.

10) 홍후조, 《교육과정의 이해와 개발》, 서울: 문음사, 2002, 308-309쪽. 내용자체의 특성을 중심으로 하는 내적 준거로는 중요성, 타당성, 폭과 깊이의 균형, 존속성, 학문의 구조, 경험과 자료를 끌어들이는 능력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내용자체가 아닌 활용과 관계가 되는 외적 준거로는 유용성, 학습자의 능력과 흥미와 학습가능성, 사회적 적절성과 욕구 및 실제와의 일치성, 목표와의 관련성 등을 들고 있다.

한다.¹¹⁾ 셋째, 기독교교육과정은 교사가 가르칠 수 있으며 동시에 학습자들에 의해 “학습될 수 있는 내용”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넷째, 기독교교육과정은 그 내용의 체계적이고 위계적인 구조에 의해서 선정될 필요가 있다.¹²⁾

또한 기독교교육과정이 조직되는 원리에는 “계획적 교육과정”과 “수행적 교육과정”의 두 차원을 고려할 수 있다. 전자는 교육의 목적, 교육의 목표의 체계적인 수행과 실현이라는 관심 아래서 교육내용을 조직 구성하기 위한 방법이고 후자는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교육내용을 전달하는 과정 중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교사, 학생 및 환경사이의 상호작용이나 상호관계성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교육과정의 내용이나 구성의 순서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이다.

두 가지 모형에 관한 논의는 역사적으로 오래 지속되어 왔으며 듀이의 설명에 의하면 전자의 학습내용의 조직 원리는 내용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분류한 교과서를 통해서 그 내용을 순서대로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것이며 교과내용이 곧 교과목의 목표가 되고 수단이 되는 반면 후자의 조직 원리는 학습자 그 자신이 출발점이 되고 중심이고 결국 목표가 되는 것으로 인성이나 성격 등이 교과내용보다 중요하며 지식의 습득보다는 자아실현이 목적이 된다.¹³⁾

3) 기독교교육 교수-학습과정(teaching-learning process)

학습자들이 가지고 있는 다문화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교수-학습과정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그 중 슬리터와 그랜트(Sleeter, C. E. & Grant, C. A)논의는 종교교육을 위한 교수-학습과정으로 주목할 만하다. 슬리터와 그랜트(Sleeter, C. E. & Grant, C. A)는 다문화적 상황이 반영되는 가운데 교수-학습과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¹⁴⁾ 첫째, 학생은 선천적으로 호기심이 많으며 복잡한 자료를 배울

11) Banks는 교육내용의 선정과 조직의 측면에서 다문화주의적 원리로 구성되어진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은 4 단계의 교육내용 구성단계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첫째, 기여 접근(The Contributions Approach): 다양한 인종과 사회계층의 국경일이나 휴일등을 교육과정 속에 포함시키고 인정하는 단계의 접근이다.

둘째, 첨가 접근(The Additive Approach): 다양한 문화적 내용과 개념 그리고 주제들을 교육과정의 근본적인 목표나 목적의 변화와는 상관없이 추가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셋째, 변형 접근(The Transformation Approach): 접근 방법이 이미 설명한 기여접근이나 첨가접근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학습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문화의 내용과 개념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이며 지식이 사회적 구성물임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접근이다.

넷째, 사회적 행동 접근 (The Social Action Approach): 학습자로 하여금 사회의 주요한 이슈와 사건들에 대하여 자신들의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있도록 하며 구체적 실천을 통하여 그들이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도록 하는 단계이다. Banks James A., 위의 책, pp. 29-34.

12) 강희천, 위의 책, 74-78쪽.

13) Dewey John, *The Children and The Curriculum*, 박철홍, 《아동과 교육과정: 경험과 교육》, 서울: 문음사, 2002.

14) Sleeter, C. E. & Grant, C. A. *Making Choices for Multicultural Education-Five Approaches to Race, class, and*

능력이 있고 고난도의 학습수행능력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둘째, 각 학습자는 나름대로의 독특한 학습 스타일이 있으며 교사는 단순히 그 스타일에 따라 가르치는 차원을 넘어서서 학생들이 그 개인의 특별한 학습방법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셋째, 교사는 학습자의 개념도식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념 도식은 언어를 통한 전달된다. 넷째, 학습자에 대한 높고 실제적인 기대감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기대감은 학습자들에게 동등한 학습 기회가 주어지고 학습자들이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긍정적이고 형평에 맞게 된다. 학생들 또한 자신들에게 높은 기대감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협동심의 배양이다.¹⁵⁾ 여섯째, 남학생과 여학생에 대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동등한 처우와 성차별이 없는 교수방식이어야 한다.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 더 많은 피드백을 원하거나 활동적인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주의집중을 더 한다거나 하는 교수과정을 지향해야 한다. 일곱째,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개발시키고 배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맥나일(McNeil)에 제안하는 바와 같이 교사들의 흥미, 능력, 스타일에 따른 다양한 양식의 교수(teaching)가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하며,¹⁶⁾ 사물 이해의 다양한 인식론적 차원을 고려하여 학습자들이 알고 있는 것을 표현하거나 새로운 사실을 전달할 때 언어뿐 아니라 다양한 교수-학습과정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¹⁷⁾

앞에서 고찰한 기독교교육과정 설계의 기본 원리를 개신교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종교교과서를 분석할 수 있는 기초적 지침으로 사용하도록 하겠다. 또한 교육과정의 자료인 교과서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클레멘트(Clement J.A.)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한다. (1) 저작자의 자격수준, 그 사람의 관점, 또는 이론 및 내용 속에 반영된 철학 (2) 내용의 정확성, 그림이나 도표의 활용 (3) 학습자의 능력에 대한 고려 등을 포함한 내용의 조직 및 배열 (3) 교수방법의 제시 (4) 참고서 및 보조물 (5) 양식이나 기술적 특징이다. 이러한 항목은 교육과정 자료의 평가 기준으로 제시된 이후 그 기준들이 보완되거나 수정하여 쓰여져 왔다.¹⁸⁾

최근 캐시(Cassie)와 스타일즈(Styles), 로버트(Robert) 등은 클레멘트(Clement)의 준거 외에 편견을 교육과정 자료의 평가기준에 포함시켰으며 그것은 직업, 종교, 사회계층, 연령 및 인종에 대한 편견이 교육내용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를 결정하는 측면이다. 더 나아가 이들은 심리학적 적절성, 즉 학습원리, 학습자의 흥미 및 동기와의 일치 정도를 준거로 교육자료가 평가

Gender, New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1995, chap.1-3.

- 15) Sleeter, C. E. & Grant, C. A는 민족이나 장애의 벽을 뛰어 넘어 주류에 순응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교수-학습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러나 주류에 순응하는 협동심은 비판적으로 성찰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본 글에서는 이들의 논의에서 협동심의 차원만 받아들이고자 한다.
- 16) McNeil J. D. *Curriculum: A Comprehensive Introduction*, 전성연 이혼정 공역, 《교육과정의 이해》, (서울: 학지사, 2002), 163-16쪽.
- 17) Eisner, E. W., *Educational Imagination*, 이해명 역, 《교육적 상상력》, 서울: 단대출판사, 1983, 185-188쪽. Little Sara, *To set One's Heart*, 사미자역, 《기독교교육교수방법론》, 서울: 장로교출판사, 1988. 참고
- 18) Clement J. A, *Manual for analyzing and selecting textbook*, (Champaign: Illinois Garrard Press, 1942) 김억환, <학습자의 인지적 수준과 교육과정 자료의 개념적 수준>, 김억환 외, 《새로운 교육과정 탐구》, 서울: 성원사, 1991, 213쪽. 재인용

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였고 또한 지오다노(Giodano)는 주어진 문제의 추상성, 글체 그리고 선정 도서를 준거로 제시하였다.¹⁹⁾ 따라서 클레멘트가 제시한 교과서 분석의 기준과 캐시와 지오다노의 논의를 엄두에 두면서 기독교교육과정의 재구성적 원리와 다문화적 사회를 고려하면서 기독교학교의 종교교과서를 분석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시한다.

첫째, 종교교과서에 제시된 교육목적과 교육목표가 신학적 타당성 및 학습자의 수준 또한 교사의 자율성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로 제시되어 있는가? 저자들의 관점이 통일된 논의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혹은 신학적 관점이나 교육철학이 편중되게 반영되어 있지는 않은가?

둘째, 교육내용의 선정이 타당성과 유용성과 학습가능성을 담보하고 있는가? 또한 학습내용에 문화적 편견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가?

셋째, 교육내용의 조직이 계획적 교육과정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수행적 교육과정의 유형인가? 또한 조직 원리로서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을 가지고 있는가?

넷째, 교수-학습과정에 있어서 학습자의 다양성이 고려될 수 있는 참여나 경험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가?

다섯째, 교과서 구성에 있어서 참고서 및 보조물이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는가? 또한 도표나 사진 등이 적절하게 포함되어 있으며 그 내용이 정확한가?

III. 개신교 종립학교 종교교과서 현황

한국기독교교육연맹에서 발행하는 성경교과서는 1989년 교육부에서 성경과를 종교과로 인정하여 교양 선택으로 정하면서 성경교과서를 단지 종교라는 이름으로 검인정을 받게 되고, 1992년도에 교육부가 1996년도부터 실시할 교육과정을 고시하면서 종교과의 교육과정도 명시되게 되고 이러한 교육과정에 맞추어 성경교과서를 출간하게 된다.²⁰⁾ 1992년 교육부가 제시한 교육과정 중에서 종교과에 대한 기초전제는 기독교만의 단독 교과서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를 같이 다루면서 기독교는 그 중 하나의 종교로 가르치라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부의 지침에 맞추어 교과서를 집필하게 되는데 2002학년도부터 실시되는 7차 교육과정에 맞추어 종교 교과서의 재개편이 이루어지면서 1992년도에 제시된 바처럼 종교학적 종교교육과 신앙적 종교교육을 병행하는 기존의 교육과정을 그대로 유지하되 전자를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2002년도에 시행되는 개편작업에서는 종교교육을 온전한 인격형성과 바람직한 사회구성원의 양육이라는 교양교육의 일환으로 자리잡게 한다는 점에

19) Cassie L.L. & Styles, K.H., "Reviewing and Selecting books and learning materials for school use", *Education Canada* (1981), 21(3); Robert, A.D., "The Roberts' checklist-selecting and evaluating social studies materials" *Social Studies* (1980), 71(3), pp. 114-117 김억환, 위의 글 214쪽. 재인용

20) 한국기독교학교연맹, 《종교(기독교): 고등학교 교사용지침서》,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6, 10쪽; 한국기독교학교연맹, 《종교(기독교): 중학교 교사용지침서》,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6, 10쪽.

더욱 중점을 두게 된다. 그러나 2002년도 교과서 재개편을 실시하고 3년을 지내면서 시대감각에 맞는 교과서 편집과 내용을 보완해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2005년 2학기부터 다시 수정작업을 시작하고 교과서의 크기확대와 더 많은 사진자료의 보충, 내용의 보완 및 축소 등을 전제로 한 교과서를 출간하면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2006년도 교과서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2006년도에 출간된 종교교과서는 7차 교육과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종교교과서의 제작 의도를 반영하여 종교교육에 관한 교육목표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종교교과서가 지향하는 교과목의 기본 목표는 첫째, 종교에 대한 균형있는 지식을 습득하여 건전한 종교관을 정립하고, 둘째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심을 확충하며, 셋째, 다른 종교를 포용하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태도를 기르는데 있다.

이러한 기본 목표아래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에 두면서 제작을 하게 되는데 성경교과서를 성경 66권의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하기 위해서 성경내용만을 주로 하여 될 수 있는 대로 성경전서를 모두 다루도록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성경중심의 교과서로 제작하며 생활에 관한 것은 “연구 문제”로 다루고 교과서 안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다. 이러한 교과서의 특징을 제작처인 한국기독교교회총연합회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1) 교육부의 1996년도 교육과정에 맞추었다. 2) 성경전서만을 간결하게 수록하였다. 3) 교과서 체제로 집필하였다. 4) 사진을 많이 수록하여 친근감이 있도록 편집하였다. 5) 중학생에 맞는 쉬운 말을 사용하였다. 6) 본교과서는 한번 읽고 끝내버리는 교과서가 아니라 장서로서 보관하고 싶도록 꾸몄으며 표지를 원색으로 하는 등 정성을 기울였다. 이러한 의도와 배경을 가지고 기획되고 제작되어진 종교교과서는 중학교용과 고등학교용으로 구별되어 제작이 되었는데 본 논문에서는 중학교용을 중심으로 교과서를 분석하도록 하겠다.

VI. 개신교 종립학교 종교교과서 분석:

중학교 종교교과서를 중심으로

1. 종교교과서의 목차

중학교 성경교과서의 3년 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목차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되어 있다.

〈표 1〉

중 1학년	중 2학년	중 3학년
내가 입학한 학교	VI. 한국인의 삶과 종교	XI. 현대사회의 특징과 종교의 사명
I. 인간의 삶과 종교	1. 한국인의 전통적 종교와 문화	1. 현대사회의 특징
1. 인간의 종교적 본성	2. 한국의 도교와 문화	2. 현대사회에서의 인간의 삶
2. 종교와의 만남과 문제해결	3. 한국의 불교와 문화	3. 현대사회에서의 종교의 사명
3. 종교의 의미와 본질	4. 한국의 유교와 문화	4. 종교간의 화해와 공존
4. 종교의 역할 및 기능	5. 한국의 기독교와 문화	XII. 기독교의 전통과 사상
II. 세계 종교의 전통	6. 한국인의 삶과 종교의 역할	1. 기독교의 역사
1. 유교	VII. 종교의 바른 이해와 종교적 생활	2. 기독교의 경전
2. 불교	1. 종교의식	3. 기독교의 교리
3. 그리스도교	2. 종교의 이상 실현	4. 기독교 생활의 실천
4. 이슬람교와 기타 종교	3. 교리에 대한 바른 이해	XIII. 교회의 역사
III. 우리 하나님	4. 종교적인 삶	1. 초대 교회
1. 창조주 하나님	VIII. 성경과의 만남	2. 중세 교회
2.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1. 성경이란 무엇인가	3. 근대 교회
3.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2. 구약성경	4. 현대 교회
4. 출애굽과 하나님	3. 신약성경	XIV. 한국교회
IV.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4. 나의 삶과 성경	1. 한국교회의 전래
1. 사사들을 세우신 하나님	IX.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2. 고난속의 한국교회
2. 왕국을 세우신 하나님	1. 예언되신 예수	3. 일제탄압에 항거한 한국교회
3. 왕국의 분열	2. 부르시는 예수	4. 급성장한 한국교회와 사명
4. 바벨론 포로생활	3. 가르치시는 예수	
V. 구원하시는 하나님	4. 고쳐주시는 예수	
1.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 하시는 하나님	X. 승리하신 그리스도와의 만남	
2. 메시아를 예언한 사람들	1. 고난 받으신 예수	
3. 신앙의 위인들	2.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4.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3. 부활하신 예수	
	4. 다시 오실 예수	

출처: 종교 (기독교): 중학교교사지침서, 2006지침서

2. 종교교과서 분석

1) 목적과 목표에 대한 분석

현재 기독교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종교교재는 7차 교육과정에서 의도하고 있는 교육적

특색들을 교과서 안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면서 제작된 교재이다. 따라서 각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와 전통, 교의와 사상들이 일일이 체계화되어 교육내용으로 선정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으며 종교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을 수용하여 논의 과정에서 반영하는 체계로 되어 있다.²¹⁾ 중학교 종교교과서의 목표를 분석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을 비판적으로 성찰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종교과목을 교육함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미션”의 목표에 대한 재개념화의 문제이다. 정웅섭은 한국의 기독교학교는 “전도학교(mission)”, 또는 자선학교의 유형에 속한 것으로 발전되어 왔는데 오늘날 전통적인 미션학교로서의 임무는 막을 내린 것이라 설명하면서 “미션”이라는 용어의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즉, 선교로 해석되어지는 “미션”이란 이 세계에 대한 물음이며 동시에 답이기도 한데 이 물음은 현대의 인간들에게 새로운 상징이 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발견케 하고 방향 잡도록 도와주는 미션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²²⁾ 즉, 예수그리스도의 연관 속에서 이 세계의 한복판에 참여하며 그 속에서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²³⁾

둘째, 교육목표의 서술 양식의 체계성에 대한 점이다. 타일러 (Tyler)는 교육목표를 진술할 경우 학습자에게 가르치려는 행동이 무엇이며, 이 행동이 활용될 수 있는 실제 영역이나 내용이 어떤 것이 어떤 것인지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2원 분류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2원 분류표에서는 교육목표를 내용과 행동의 두 차원에서 다시 세밀하게 분류하는데 이러한 방식은 후에 블룸(Bloom)에 의하여 지적인 영역과 정의적인 영역으로 구체화 되었으며, 해로우(Harrow)에 의해 운동지능적 영역이 세분화 되었다.²⁴⁾ 이러한 차원에서 보았을 때 목표 서술에 있어서 지, 정, 의 차원이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학습자의 학습 내용은 비교적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나 학습행동에 관해서는 애매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다.

셋째, 학습목표와 학습자의 삶과 행동의 변화와의 관련된 목표의 문제이다. 학습목표가 학습자의 요구나 필요, 현대 사회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주요한 사회적 주제, 삶의 궁극적 문제들과 의미의 차원들을 종교적 차원에서 성찰하고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돕는 목표로 설정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목표를 설정할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학습자의 심리적 사회적 요구 사항들이 중학교 수준에 맞도록 적절하게 반영될 필요가 있다.²⁵⁾

21) 한국기독교학교연맹, 《중학교 종교 (기독교) 교사용 지침서》 참고.

22) 정웅섭, 〈학교 종교교육론〉, 오인탁외, 《기독교교육론》, 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1991. 209-210 쪽.

23) L.M. Russell, *Christian Education in Mission*, (The Westminster Press, 1967) 참고.

24) Tyler R. W. *Basic Principle of Curriculum and Instruc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49, 이해명 역, 《교육과정과 학습지도의 기본원리》, 서울:교육과학사, 1988; Harrow, A. J. *A Taxonomy of Psychomotor Domain: A Guide for Developing Behavioral Objectives*, NewYork: David MaKay, 1972; Bloom, B. S. et al, *Taxonomy of Educational Objectives, Handbook II: Affective Domain*, NewYork: David MaKay, 1964. 참고

25) 2003년 실시된 한국 중등학생의 생활및 문화 실태 분석연구를 보면 중.고등학생들은 상급학교 진

2) 교육내용의 선정과 조직

(1) 교육내용의 선정

첫째, 교육내용의 선정에 있어서의 타당성을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다양한 문화와 전통들이 소개되어 있는 측면을 보면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II. 세계 종교의 전통”이라는 제목 하에 유교와 불교 그리스도교 및 이슬람에 대한 소개가 간략하게 되어 있다. 중학교 윤리나 세계사 시간에 배우는 내용과 반복되어지는 내용이기도 한 이 부분에 대하여 연구 과제를 통하여 각 종교가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 미친 긍정적인 기여점을 찾아보고 각 종교의 가장 독특한 특징을 살펴보도록 함으로써 각 종교에 대하여 객관적인 입장에서 설명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2학년 과정에서는 VI. 한국인의 삶과 종교에서 한국의 전통적인 종교와 문화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1학년 과정에서 배운 세계의 종교 상황을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전개되어진 종교로 우리의 역사와 종교적 역사와의 발전과정을 심화시켜 설명하고 있다. 한국의 전통적 종교와 문화와의 관련성을 설명하면서 3학년 과정에서는 XI. 현대사회의 특징과 종교의 사명에서 종교 간의 화해와 공존이라는 주제 하에 다종교가 공존하고 있는 한국적 상황 속에서 에큐메니칼한 입장 속에서 종교간 대화의 필요성과 현대사회에서의 종교의 발전을 위해 어떤 태도가 필요한 지에 대하여 관용적이고도 대화적인 자세로 견지할 것을 격려하는 교육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학년, 2학년과정에서 다양한 종교 문화와 전통이 상이한 전통들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서술하고자 한 점에 있어서 다문화주의 교육과정으로의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뱅크의 다문화교육의 내용선정의 차원에서 보면 부가적 차원의 단계까지로 볼 수 있다. 3학년 단계에서 설명되는 현대사회의 종교의 측면에서는 적극적으로 다종교상황에 대한 인지적 차원의 이해뿐 아니라 자신의 행동과 입장을 구체화 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행동의 접근까지 다가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타 종교에 대하여 비교적 객관적인 서술과 설명을 통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편견을 갖지 않고 이해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의도는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학과 관련된 공부, 학업문제나 진로문제로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다. 자신의 고민·걱정거리는 주로 친구나 선후배 또는 어머니와 상의하며, 아버지나 학교선생님과 고민, 걱정거리를 상의하는 학생은 소수였다. 또한 대부분의 중, 고등학생들은 음주를 제외한 흡연, 집단따돌림, 괴롭힘, 돈이나 물건 갈취, 폭력, 가출, 자살시도, 약물복용, 성추행 및 성폭행과 같은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실제생활에서는 술을 마시거나 자살 충동을 느끼거나 가출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경험에 있는 학생들이 2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문화와 생각, 입장 차이 등을 잘 이해해 주는 선생님을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엄격한 선생님보다는 학생들을 편애하지 않고,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거나 수용해주어 대화가 잘 통하는 선생님, 자상하고 너그러운 선생님을 바람직한 교사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학생은 58.9였으며, 종교 중에는 기독교를 믿는 학생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불교, 천주교순이며,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도 41.1%나 되었다. 박효정, 《한국중등학생의 생활 및 문화 실태분석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03. 연구요약

둘째, 유용성의 측면이다. 본 교과서는 학습자들의 발달단계, 또는 사회적 경험에 필요한 정보나 주제에 관심을 갖고 이러한 측면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제안하기 보다는 신학적인 주제의 중요성 순서로 학습의 내용이 결정되는 유형으로 기독교 관련 내용을 선정하고 있다.²⁶⁾ 이러한 선정의 원리는 학습자들의 삶에 차원과 관련된 유용성과 학습과정에 있어서 만족의 원리, 기회의 원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다.²⁷⁾

셋째, 학습가능성의 측면이다. 학습가능성을 고찰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비판적 성찰의 대상이 되는 것이 언어이다. 언어는 학습자가 학습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일차적인 교육매체이며 동시에 잠재적 교육과정을 전수시키는 주요한 매체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성경교재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이해하기 용이한 단어들로 설명되어야 하며 선언적이고 선포적인 언어보다는 설명적이고 서술적인 용어로 사용되어야 한다.²⁸⁾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중학교 교재에서 사용된 언어는 다분히 신학적인 용어가 설명없이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비기독교인 학습자들의 이해를 저해하는 요소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²⁹⁾ 또한 학습 내용 속에 은연중에 내포되고 있는 잠재적 가치 중 비기독교적 가치들을 좀 더 철저하게 분석하고 분류할 필요가 있다.³⁰⁾ 본 교과서에서는 각 과마다 내용을 전개하기 이전에 본문-요절-과제의 구조로 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선행학습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사용하고 있는 성경이 개역한글판으로 되어 있다. 개역한글판은 대표적인 형식일치의 성서이다. 중학교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일치의 새 번역과 같은 성서를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할 과제중 하나이다.³¹⁾

넷째, 문화적 편견의 측면이다. 문화적 편견에 대한 측면이 편견의 모습들이 가장 많이 발견되는 부분은 성, 인종, 사회적 계층, 사회적 소수자에 관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중학교 교재에서 볼 수 있는 성(gender)에 관한 입장은 양성평등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내용을 구성해 가

26) Tyler R. W. *Basic Principle of Curriculum and Instruc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49, 이해명 역, 《교육과정과 학습지도의 기본원리》, 서울: 교육과학사, 1988, 63-70쪽.

27) 문화관광부, 《청소년백서》, 문화관광부에서는 매년 《청소년백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이 보고서에 수록된 청소년 상담실적 현황(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전화 및 개인 내방상담 실적)은 아래와 같다. 이런 상담의 내용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당면하고 있는 삶의 과제와 고민들을 발견할 수 있다. 문제유형별 상담실적(2000년)

- 가정 : 2,102건(12.59%), - 학습 : 1,034건(6.19%), - 진로 : 908건(5.44%),
- 취업 : 25건(0.15%), - 교우 : 1,586건(9.50%), - 이성 : 590건(3.53%)
- 성 : 2,714건(16.25%), - 비행 : 2,554건(15.30%), - 약물남용 : 96건(0.57%)
- 성격 : 1,783건(10.68%), - 정신건강 : 717건(4.29%), - 여가활동 : 92건(0.55%)
- 제도개선 : 34건(0.20%), - 기타 : 2,463건(14.75%)

28) 강희천, 《기독교교육사상》,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1, 56-61쪽.

29) 《중학교 종교 중》, 117쪽.

30) 《중학교 종교 상》, 75, 76, 78, 82, 155, 161쪽.

31) 서중석, 《복음서해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1, 389-391쪽.

고자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성 중심적 언어나 표현 예화 등이 지배적으로 많이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다. 중학교 1학년 교재에서 기독교가 배출한 인물들을 설명하면서 6명 모두 남성들을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³²⁾ 또한 성서의 내용을 신앙사건의 맥락에서 구성해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여성의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순종의 본을 보인 이삭”-“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한 야곱”-“꿈이 있는 소년 요셉” 등 사건의 모든 주인공은 남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학년 “Ⅲ. 우리 하나님”에서 기독교 신앙의 태동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어디에서도 여성의 활동은 설명되지 않고 있다.³³⁾ 중학교 2학년 교재에서도 “Ⅸ.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에서 예수의 제자들을 설명하면서 12명의 남성제자들은 예수님을 도와 병든 사람을 고치고, 많은 사람을 먹이고, 하는 등 적극적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역할로 묘사되고 있으나 여성제자의 존재는 인정하나 소극적 의미로 섬기는 자로서만 묘사되고 있다. 중학교 3학년과정에서는 “Ⅺ. 현대사회의 특징과 종교의 사명”에서 나누며 살았던 사람들의 예로 ‘테레사 수녀’가 설명되고 전체 내용 중에서 여성의 역할에 관한 부분은 언급되어 지는 부분조차 없음을 발견하게 된다. 인종에 대한 측면을 살펴보면 사회적 기여를 한 사람들의 예로 서구의 인물들이 지배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중학교 1학년 “Ⅰ. 인간의 삶과 종교”에서 세계적인 위인들을 소개하면서 슈바이처, 에디슨, 링컨, 나이팅게일, 간디, 마틴 루터 킹, 테레사 수녀, 아인슈타인 등을 예로 들고 있다. 또한 위대한 신앙인을 설명하면서 슈바이처와 테레사수녀가 반복적으로 설명되고 있다.³⁴⁾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성(gender)과 인종적 측면에서는 좀 더 다양한 모델을 제시해 줌으로 민족적이고 다문화적인 편견들을 갖지 않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한국의 전통과 문화에 대해서도 토착화의 관점에서 재해석함으로 문화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갖도록 돕는 것이 요구된다.³⁵⁾

(2) 교육내용의 조직

먼저, 교육내용의 조직의 구조를 본다면 앞에서 설명한 “수행적 교육과정”보다는 “계획적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조직의 구조가 학습자들의 인성이나 성격 등이나 자아실현의 측면이 고려되기 보다는 신학적 내용의 중요성, 성서 자체의 배열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계획적 교육과정”의 구조 속에서 학습내용을 조직하는 효율적인 준거에 다음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즉, 계속성(continuity), 계열성(sequence), 통합성(intergration)이다. 계속성이란 중요한 교육과정 요소를 수직적으로 강조하는 것이며 중요한 경험 요소가 반복적으로 강조되도록 조직하는 것을 의미한다. 계열성은 학습경험의 수직적 조직에 해당하는

32) 위의 책, 17쪽.

33) 위의 책, 66-98쪽. 신앙의 위인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드보라, 에스더와 같은 인물들이 언급되고 있으나 남성 중심적인 관점으로 신앙사건들을 설명하고 있다.

34) 중학교교재 상, 26, 37; 중, 56쪽.

35) 《중학교 종교 중》, 15쪽.

것으로 계속성 이상의 것이다. 계속성이 하나의 경험요소를 동일 수준에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제시하는 것에 반하여 계열성은 학습경험이 단계적으로 넓어지고 깊게 하는 것이다. 통합성이란 학습경험을 수평적으로 연관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는 학습자로 하여금 사물을 종합적으로 보게 하고 학습내용과 행동을 통합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의 기준으로 교육내용의 조직을 살펴보도록 한다.

계속성의 측면을 살펴보면 종교의 다양한 공존과 평화적 모습을 담아내기 위하여 중학교 1학년과정에서 3학년 과정까지 종교의 다양성을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또한 학년이 올라 갈수록 종교의 의미를 한국의 전통, 현대사회의 특징 등 구체적 사회적 상황과의 관련성속에서 설명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종교의 의미와 다양성에 대한 학습내용은 비교적 계속성과 계열성을 담아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같은 학년의 교과서 내에서도 집필자의 신학적 입장에 따라 기독교 성경이나 타문화와 종교를 보는 관점이 일치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내용의 조직차원에서는 계속성과 계열성을 담아내고자 하고 있으나 내용자체의 방향성은 그러하지 못하다.

통합성의 기준에서 살펴볼 경우 학습자들이 습득한 학습내용이 사물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학습내용과 행동을 통합시킬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학습내용과 행동의 통합측면에 있어서는 학습자들의 관심구조나 그들의 삶의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상적 사건들과는 관련성이 미비하다고 볼 수 있다.

3) 교수-학습과정(teaching-learning process)

교수학습과정에서 학습자들의 참여가 얼마만큼 적절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학습자의 학습의 동기와 성취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다.³⁶⁾ 성경교재 구성에 있어서 학습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습내용에 대한 심화 학습을 위하여 각 과마다 연구문제가 수록되어 있다. 중학교 교재(상)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각 과마다 연구문제가 2문제 씩 총 40문제가 수록되어 있다. 이 연구문제의 유형은 주로 개방형 질문과 폐쇄형 질문이 절반 가량씩 나뉘어 있는데 개방형 질문의 경우 “만약 우리가 종교를 선택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선택할 것인가?” “종교를 믿고 변화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서로 이야기해 보자.” 와 같은 유형의 질문은 보편적으로 학습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질문이지만 반면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기도로 해결 받은 경험을 이야기 해 보자.” “금식기도의 효력에 대해 서로 이야기 해보자.” 와 같은 질문은 종교적 경험을 갖지 못한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제외 되거나 해결하기 어려운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학습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는 그들의 삶의 관심이 반영되어 있는가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데 이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연구문제 중 중학생이 가지고 있는 삶의 영역과의 관련성이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³⁷⁾ 또한 연구문

36) Ratcliff Donald. and Davies James A. (ed), *Handbook of Youth Ministry*, Birmingham: R.E.P.,1991, pp. 32-34.

제가 학습자들의 인지적 차원에 관한 질문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학습과정에 있어서 학습자들의 정서적, 행동적 활동 등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³⁸⁾ 연구 문제 안에 그림을 보거나 음악을 듣고 자신의 느낌을 이야기 해본다든지 종교적 가치에 관한 활동들을 직접 수행해 본다든지 하는 등의 다양한 연구문제를 포함시켜 인지적 차원뿐 아니라 정서적 행동적 차원의 학습활동 등을 장려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2005년 교과서개정을 하면서 다양한 삽화를 포함시켜 학습자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한 것은 현 교과서가 지속적으로 향상시켜가야 할 장점이라고 볼 수 있다.

4) 교과서 구성의 참고물이나 보조 자료

먼저 교과서 구성의 참고물로 교사용지도서에 각 과마다 참고도서가 소개되어 있다. 중학교 전 과정을 통하여 교사에게 제시되는 참고도서를 보면 기독교신학관련에 관한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또한 기독교 신학 관련한 서적들도 대부분 전문서적들이 주로 이루고 있어 개론적인 논의를 위한 것 이라기보다는 심도있는 신학적 고민을 하면서 읽어야 할 책들이다.³⁹⁾ 공통적으로 학습자관련 도서, 즉 학습자의 문화나 심리, 발달특징 등에 관련한 책은 전 학년에 걸쳐 1권도 없었다는 점은 특이할 점이다. 사회·문화와 관련한 서적에 있어서도 학습자들의 문화나 관심에 관련한 것이기 보다는 전반적인 사회적 변화나 문화에 관련된 도서들이며 구체적인 사회의 특징을 설명하는 도서라기보다는 사회학이나 체계에 관련된 전문서적이다.⁴⁰⁾ 또한 서구의 통계나 기사를 중심으로 설명한 사회학 책이다. 현대사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위해서 서구의 학자의 통계와 서구사회를 설명한 도서보다는 한국 상황에 대한 통계나 설명이 더 유용할 것이다.⁴¹⁾

중학교 1학년과정은 특이하게 다른 학년에 비하여 참고도서가 적은 수로 배정되어 있다.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는 사회문화관련 도서가 다른 학년에 비하여 비교적 많이 소개 되어 있다.⁴²⁾ 또한 중2학년과정에서는 다른 학년보다 타종교 관련한 도서가 많이 소개되어 있다.⁴³⁾ 그

37) 박효정, 《한국 중등학생의 의식 및 생활실태 조사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03. 참고

38) 《중학교 종교 상》, 98, 155쪽.

39) 예를 들면, 존 레이저 김채상 역, 《초기기독교형성과정 연구》, 대한기독교서회, 1980; 한스 콘젤만, 박창건 역, 《초대 기독교 역사》, 성광문화사, 1994. 등

40) 중학교 3학년과정에 소개되어 있는 사회문화 관련도서들이다. 유럽미디어 연구회, 송해룡역, 《정보미디어와 현대사회》, 나남, 1992; 조병일, 《최신정보체계론》, 박문각, 1991; A. 기든스, 《현대사회학》, 을유문화사, 1992; 《정보사회와 인간의 이해》, 정보문화센터편, 1990 (참고로 교과서에 표기되어 있는 것과 동일하게 표기하였다)

41) 이러한 차원에서 기든스의 《현대 사회학》보다는 김찬호의 《여백의 질서》, 《사회를 보는 눈리》 등이 더 적합할 수 있다고 본다.

42) 예를 들면 백우현, 서무룡, 송호봉, 《인간과 환경》, 탐구당, 1993; 정용, 옥치상, 《인간과 환경》, 지구문화사, 1992; 저동문화교실, 《2000대중가요가사모니터보고서》, 2000 등이다.

43) 정진홍, 《종교문화의 이해》, 청년사, 2000; 한국종교연구회, 《종교 다시읽기》, 청년사, 2000 등이

런데 마치 학교의 교육을 교회의 교육의 연장선에서 보고자 하는 참고도서 선정도 보인다.⁴⁴⁾ 중학교 3학년의 참고도서는 대부분 성서학, 교회사, 조직신학, 선교학 관련의 도서로 구성되어 있다.⁴⁵⁾ 중학교 3학년에서 다루는 주요주제가 현대사회에서의 종교의 사명, 기독교전통과 사상, 교회의 역사, 한국교회의 역할 등임을 감안할 때 제시된 참고도서는 다분히 성서나 신학의 내용자체에 대한 이해는 도울 수 있으나 현재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나 다른 종교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교사지침서에 나타나 있는 지도의 방향성이 좀 더 융통성 있고 포괄적이고 현대적인 성서해석의 맥락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교사들에게 제시되는 교육 참고자료가 도서로만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점을 들 수 있다. 특별히 정보화 사회를 살아가는 학습자들에게 다양한 교수-학습과정을 위한 다양한 학습자료의 제공은 필수적인 문제이다.⁴⁶⁾ 참고도서 안에서도 다양한 영역, 즉 음악, 미술, 문학, 과 같은 예술영역이나 사회문화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가능한 도서들이 선정될 필요가 있으며 보조 자료로 미디어자료, 그림자료, 음악및 문학자료 등이 다양하게 소개되고 제공될 필요가 있다.

V. 나가는 말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기독교학교연맹에서 발행된 종교교과서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보았을 때 현행 사용되고 있는 종교교과서가 제 7차 교육과정의 지침을 고려하여 내용 구성의 측면에 있어서 다양한 종교적 전통과 문화를 소개하고자 시도한 점과 교과서 편집에 있어서 학습자들의 감각에 맞추기 위하여 지속적인 보완을 시도한 점들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학습의 체계성과 효율성과 의미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종교교과서에 다음과 같은 점이 좀 더 고려되고 반영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목표와 목적을 설정함에 있어서 장기적 차원의 궁극적 “교육목적”을 단기적 차원

다. 특히 위의 두 책은 종교를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관점이 실제적인 사례들과 함께 잘 제시되어 있다.

44) 예를 들면, 한국목회신학연구원, 《교회임원훈련교재》, 세미한, 1991 과 같은 예이다. 《중학교교사용 지침서》, 206 쪽.

45) 류형기, 《성서주해 (IV)》, 총리원출판부, 1968; 김득중, 《신약성서개론》, 컨콜디아사, 1986; 클라우스베스터만, 방석중, 박창건 공역, 《구약신약성서개설》, 종로서적, 1983; 이회숙, 《산상수훈강해》, 종로서적, 1988; 다니엘미글리오리, 이정배역, 《조직신학입문》, 나단, 1994; 존 레이저, 김쾌상 역, 《초기기독교형성과정연구》, 대한기독교서회, 1980; 스티븐 니일, 홍치모, 오만규공역, 《기독교전교사》, 성광문화사, 1980등

46) Lenard Sweet, *First century passion for the 21st century world*, 김영래 역,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서울: 좋은씨앗, 2002 참고.

의 구체적 “교육목표”로 변형시킴으로써 그 목표를 실현 가능케 하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하며 학습자의 학습결과에서 그 실현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차원으로 세분화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교육목표 수립 시 다문화, 다종교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학습자들의 삶의 정황 속에서 요구되어지는 학습자의 요구 및 필요를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학습내용의 선정과 조직에 있어서도 교수-학습과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인 시안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즉, 학습자들의 발달과 사회적 경험들이 반영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종교과목에서 소개되어 지는 새로운 개념들이 그들의 언어로서 이해될 수 있도록 선정, 조직되어야 하며 다문화적 사회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편견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학습내용이 좀 더 다양하게 소개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다양한 문화와 종교의 형태를 좀 더 전문화하여 객관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에서 시도되는 종교교육이 다종교와 다문화적 사회라는 점과 학습자들의 발달단계가 “정체감 형성”의 시기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종교교재는 학습자들이 그들 자신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들의 실존적 경험을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내용으로 선정되어야 하며 종교적 개념을 발달시키기 위한 근거로써 학습자의 감정, 행동, 경험들이 사용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재개념주의적인 관점에서 교과서를 분석하고 해석하여 교과서 내에 존재하고 있는 비기독교적 “잠재적 가치 (hidden value)”를 찾아내어 배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⁴⁷⁾

셋째, 또한 교수-학습과정에 있어서도 일방적인 교사중심의 교수 방법 및 지침에서 벗어나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학습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학습과제나 지도방법이 채택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정보화 시대를 경험하고 있는 학습자들에게 디지털화된 교육매체라든지 교육방법이 가능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도 구축해 나가야 함을 제안한다. 또한 제한된 교과서의 지면과 한정된 시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학습자용 종교교재에 각 단원마다 읽어볼 수 있는 도서나 영화와 같은 다양한 학습 자료를 소개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넷째, “교육과정 연구위원회”의 구성을 통해 장기적이고도 구체적인 교육과정의 개선과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교육과정 연구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일관성과 체계성과 효율성을 갖춘 교과서의 개발이 연합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현장에서 교육하는 교사들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짐으로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종교교과 교수과정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다섯째, 종교교과서의 개선을 위하여 “평가”제도의 확립이 공식적 차원에서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일반학교교육과는 달리 기독교교육은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 이루어지는 교육이라는 특수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그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인간들의 책임이나 능력에 관한 평가의 필요성을 사실상 경시해 왔다.⁴⁸⁾ 그러나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와 같은 전문적 평가

47) 서구문화와 더불어 이 땅에 전수된 기독교에 관한 설명체계에서 보여 지는 자본주의적 경제관이나 개인주의적 가치관등이 기독교적 가치의 설명 속에 암묵적 형태로 노출되고 있음을 살펴보아야 한다. 강희전, 앞의 책, 91.

를 통하여 종교교재가 종교교육의 효율성과 의미를 증대시킬 수 있는 교재로 개선될 수 있는 자료가 제공되어야 하며 요구사정(Needs Assessment)을 통하여 학습자들의 요구와 필요, 상황을 고려한 교과서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종교교육의 가치와 의미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희천, 《기독교교육사상》,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1.
- _____, 《기독교교육의 비판적 성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 고병철, <한국종교교육의 정황과 방향-종립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 제 21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5.
- 김억환, 김민환 공저, 《새로운 교육과정 탐구》, 서울: 성원사, 1991.
- 박효정, 《한국중등학생의 생활 및 문화 실태분석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03.
- 서중석, 복음서해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1.
- 손원영, 《프락시스와 기독교교육과정》,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 오인택 편저, 《기독교교육론》, 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1991.
- 한국기독교학교연맹, 《종교 (기독교): 중학교교사용지침서》,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6.
- 한국기독교학교연맹, 《중학교 종교 - 상 -》,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6.
- 한국기독교학교연맹, 《중학교 종교 - 중 -》,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6.
- 한국기독교학교연맹, 《중학교 종교 - 하 -》,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6.
- 한준상의 (공역), 《교육과정 논쟁: 교육과정의 사회학》, 서울: 집문당, 1988.
- 홍후조, 《교육과정의 이해와 개발》, 서울: 문음사, 2002.
- Banks James A., *An Introduction to Multicultural Education*, (Boston: Allyn and Bacon, 2002.
- Bloom, B. S. et al, *Taxonomy of Educational Objectives, Handbook II: Affective Domain*, New York: David MaKay, 1964.
- Dewey John, *The Children and The Curriculum*, 박철홍, 《아동과 교육과정: 경험과 교육》, 서울: 문음사, 2002.
- Eisner, E. W., *Educational Imagination*, 이해명 역, 《교육적 상상력》, 서울: 단대출판사, 1983.
- Harrow, A. J. A *Taxonomy of Psychomotor Domain: A Guide for Developing Behavioral Objectives*, New York: David MaKay, 1972.
- Lenard Sweet, *First century passion for the 21st century world*, 김영래 역,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서울: 좋은씨앗, 2002.
- Little Sara, *To set One's Heart*, 사미자 역, 《기독교교육교수방법론》, 서울: 장로교출판사, 1988.
- L.M. Russell, *Christian Education in Mission*, The Westminster Press, 1967
- McNeil J. D. *Curriculum: A Comprehensive Introduction*, 전성연 이혼정 공역, 《교육과정의 이해》,

서울: 학지사, 2002.

Pinar W. F.(ed), *Understanding Curriculum: An Intriduction to the Study of Historical and Contemporary Curriculum Discourses*, 김복영외 (역), 교육과정 담론의 새 지평, 서울: 원미사, 2001.

Ratcliff Donald. and Davies James A. (ed), *Handbook of Youth Ministry*, Birmingham: R. E. P., 1991.

Sleeter, C. E. & Grant, C. A. *Making Choices for Multicultural Education-Five Approaches to Race, class, and Gender*, New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1995.

Tyler R. W. *Basic Principle of Curriculum and Instruc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49, 이해명역, 《교육과정과 학습지도의 기본원리》, 서울: 교육과학사, 1988.

원고접수: 2005년 5월 20일 1차심사: 6월 7일 게재승인: 6월 15일

연구자 소개: 조은하

① 전공: 연세대학교 신학사, 신학석사, 신학박사 (기독교교육학 전공)

② 소속: 목원대학교

③ 관심영역: 예술과 종교교육, 한국기독교교육사, 영성교육의 실제

④ 주요논저: 《통전적 영성교육의 신학적 근거: 종말론적 공동체를 중심으로》, 《정보화 시대의 영성과 신앙공동체》, 《현대적 의미의 기독교 영성교육》

⑤ E-mail: eunhaedu@paran.com, eunhaedu@hanmail.net

Abstract

An Analytical Study on Religious Textbooks of Christian Middle Schools

Cho Eun Ha

Mokwo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ain some suggestions for the improvement of christian school education in Korea from an analysis on religious textbooks of christian middle schools. The religious textbooks for christian middle schools are analysed from the view point of the traditionalist approach, conceptual-empiricist approach and reconceptualist approach.

Suggestions below are derived from the religious textbook analysis of christian middle schools. Religious textbooks used in christian middle schools are focused on the transmission of educational content without providing specific objectives or concrete criteria for evaluation of the objectives. Furthermore, one can find from the religious textbooks used in christian middle schools that most curriculums are not concerned with the effectiveness of teaching-learning process when selecting and organizing educational content.

In this respect, First, the religious textbooks of christian middle schools need to be chosen on the basis of the 'effectiveness' and concreteness of the curriculum through a process of feedback, to be constructed for maturity and growth of cognitive, affective and conative dimensions. Second, professionals in constructing religious textbooks of christian middle schools need to be trained and cooperate in order to reconstruct and develop religious textbooks in the area of youth context and information society context. Third, Religious textbooks of christian middle schools need to be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econceptualist approach, - in other words, 'critical reflection'-to find non-Christian hidden values and to eliminate them. Fourth, a formal system of evaluation for the reconstruction of religious textbooks for christian middle schools, which considers the needs in multicultural society should be established.

Key word : systemicity, effectiveness, critical reflection, multicultural society, contexts of learners, development of learners